

‘소비자 편익’ 미끼 … 이마트 피자·롯데마트 치킨

“영세 자영업 생계수단까지 갚아먹나”

초저가 5000원 통닭 1시간만에 300마리 동나

“말로만 동반성장… 뒤에선 골목상권 죽이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으로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어온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치킨, 피자 등 ‘생계형 서민 업종’까지 파고들면서 ‘골목상권 잡식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롯데마트가 9일 첫 판매를 시작한 5000원짜리 ‘통큰 치킨’이 지역에서도 한 가격으로 인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이날 오전 롯데마트 상무점에서는

치킨 판매 시작 1시간 만에 준비했던 물량(200~300마리)가 모두 팔렸으며, 광주·전남 롯데마트 7개 점포에서도 예약물량이 거의 없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롯데마트가 전국 82개 매장에서 1마리(900g 기준)에 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통큰 치킨’은 시중 치킨 전문점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기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던 가격과 비교해도 30~40% 가량 저렴하다.

롯데마트가 ‘통큰 치킨’ 판매에서 나선 것은 논란 속에서도 ‘이마트 피자’가 큰 인기를 끌자 서민 대다수가 간편하게 즐기는 치킨을 대량으로 내세운 것이다.

현재 롯데마트는 월 평균 60만마리, 연간 720만마리가 판매될 것으로 보고 점포별로 하루 최대 200~400마리의 낱을 터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 상태다.

타지역에서 일반 피자보다 1.5배 큰 1만500원짜리 피자로 동네상권을 뒤흔든 ‘이마트 피자’도 이달 20일부터 이마트 광산점이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골목상권 잡식’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역 중소상인들은 ‘동

네가게’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품까지 취급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 죽이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소비자 편익’을 주장하며 짬 값으로 선보이고 있는 치킨이나 피자는 ‘미끼 상품’에 불과한데다 이로 인해 해당 업계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몰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김용재 집행위원장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점점 잠식해 가고 있다”며 “말로만 동반성장을 강조할 게 아니라 각사의 사업이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9일 오후 광주은행 신입직원들이 광주시 동구 지산동 베네치아 컨벤션 풀에서 열린 ‘광주은행 신입직원(Rookie) 페스티벌’에서 태권무를 선보

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광주은행 임원을 비롯해 2009년 이후 입행한 신입직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노래, 댄스, 태권무 등 퍼포먼스 공연 등을 즐겼다.

〈광주은행 제공〉

소보원 “식품 유통기한표시제 개선 필요”

“카드 수수료 선진국보다 높다”

체크·직불 유렵의 10배…수수료 체계 모순투성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아 카드 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높은 수수료율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이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체크·직불카드 수수료, 유럽의 10배 = 9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국내외 지급카드 수수료의 특징 및 시사점’ 자료와 예산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1.85%, 직불카드는 1.5%다.

이는 체크·직불카드 수수료가 0.15%인 네덜란드나 덴마크, 0.2%인 벨기에, 스위스 등에 비해 10배 안팎으로 높은 수준이다.

조사 대상인 11개 선진국 중 스페인만 유일하게 1.55%에 달했을 뿐 나머지 국가는 모두 1%에 훨씬 못 미쳤다. 2.08%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외국보다 높았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0.7%였으며, 호주(0.8%), 덴마크(0.95%)도 1%에 못 미쳤다. 12개국 중 11곳이 우리나라보다 수수료율이 낮았다.

◇ “카드 수수료 체계, 모순투성이”

다른 나라는 체크·직불카드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보다 훨씬 낮아 1%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체크·직불카드는 이용자의 예금에서 결제가 이뤄져 자금조달이나 연체관리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85%, 신용카드는 2.08%로 별 차이가 없다. 올해 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수수료는 요지부동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신용카드 사용이 많으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수수료율이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데 다른 나라보다 더 높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합뉴스

코스피 연고점 돌파…2000 눈앞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쿼드러플위칭데이) 등 이벤트 데이라 불린 9일 코스피지수는 1,980선까지 뛰어 넘으며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다.

지수는 3년1개월 전 수준에 유판했으며 시가총액은 11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3.24포인트(1.70%) 오른 1,988.96으로 마감됐다.

지난달 만기일 약동이 채 및하지 않은 가운데 맞은 이날 동시호기기에 차익거래와 이를 앞세운 외국인 순매수 가 유입되면서 코스피지수는 장중 최고가에서 종가를 기록, 연중 최고치를 동시에 1,988.96으로 갱아치웠다.

이는 2007년 11월9일의 1,990.47

반면 크립빵과 케이크는 변질 속도가 빨라 크립빵은 유통기한 경과 후 2~8일 사이에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케이크는 유통기한 경과 후 2일째부터 일반세균이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기한표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후 3년 여만에 최고치며, 시가총액은 1105조493억원으로 지난달 10일에 기록한 1001조7천140억원을 뛰어 넘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6.60원 내린 1,

139.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한국은행 금통위가 당초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채권금리는 소폭 올랐다. 최근 물량 부족으로 국고채 3년물에 집중됐던 가격 폭등현상도 정부 개입 등으로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였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1%포인트 오른 3.96%로 거래를 마치고, 10년짜리 국고채 금리도 4.38%로 0.01%포인트 상승했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한국 유통대상’ 대통령 표창



2010년 한국 최고 유통기업으로 광주신세계백화점(대표이사 이장환·한·사진)이 선정됐다.

9일 광주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0 한국 유통대상’ 시상식에서 혁신적인 경영활동과 고객만족을 극대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한국유통대상은 국내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유공자를 포상하는 유통업 대표행사다.

또 완도, 영광 등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특산물을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

한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15년간 활발한 지역 친화 경영과 고품격 서비스로 지역 최고의 백화점으로 성장해왔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지역에서 성공을 거둔 이유는 ‘지역 동반성장’을 경영철학으로 삼고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생산한 제품들의 판로개척을 돋는 등 광주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기 때문이다.

이장환 광주신세계 대표는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과 지역 및 협력업체 상생 경영에 힘써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 경영과 고객 제일의 원칙을 더욱 확고하게 지키는 유통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롯데百 ‘연 매출 10조 시대’

롯데백화점(대표 이철우)이 국내 백화점 최초로 ‘연(年) 매출 10조 원 시대’를 연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들어 이달 7일까지 누적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16.4% 증가한 9조8500억원으로, 12일께 연 매출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79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은 개장 첫 해 매출 454억원을 올린 이후 31년만에 매출이 220배 증가

했다. 1991년에는 연매출 1조원을 넘어서던 데 이어 1999년에는 롯데백화점 본점이 단일 점포로는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기록하는 등

31년간 국내 백화점업계의 성장을 의미하는 기록을 쏟아냈다. 외형 성장 뿐 아니라 질적 성장도 꾸준히 이어졌다.

롯데백화점은 그동안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복합쇼핑몰, 아웃렛, 패션전문몰 등 새로운 유통업태를

선보이며 유통시장을 더욱 다양화 했다.

또 내수 산업이라는 백화점이 미지에서 벗어나 러시아, 중국 등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 한국의 상품과 문화를 외국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전도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매출 10조원 달성이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는 교류가 되고, 임직원들에게 자신감과 함께 더 큰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SST 서울시스템기술(주)는 최고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도전과 창조
새로운 미래**

CTS

- 신문제작 시스템 기술의 고도화
- 전공정 관리 시스템 구축
(기사의 취재현장에서 가정에 배달되는 시점까지 관리 공정 시스템)
- 운전시스템의 BACKUP

DTP

- 전문 출판용 프로그램 개발
- Page Star 3.0 개발
- Page Star 3.5 개발
- NEO Page 2.0 개발
- NEWS PLUSE 개발
- WTSIWYG 구현

■ 백신프로그램 및 보안솔루션 (백신 프로그램 공급 / 보안 솔루션 공급)

■ 웹용 홈페이지 및 리뉴얼 (홈페이지 디자인 개발 / 기존 홈페이지 리뉴얼)

|가입협회 및 단체|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설립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회, 한국전산업협동조합, 대한인쇄문화협회, 광주·전남 정보산업협동조합

SST 서울시스템기술(주) | 대표이사 | 오주일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1번지 전일빌딩 9층
TEL : 062-226-4093 | FAX : 062-226-4095